

예술심리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삶의 만족도, 일터영성의 매개효과

이은숙, 고정훈*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The Mediating Effe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Life Satisfaction of Art Psychology Counselors

EunSook Lee, JeongHoon Ko*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심리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일터영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속초시 예술심리상담사 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변수 간의 인과관계 및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예술심리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삶의 전반적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표면행동, 내면행동 요인 모두 삶의 전반적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일터영성은 모두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예술심리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삶의 주관적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내면행동 요인만 삶의 주관적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일터영성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예술심리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일터영성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예술심리상담사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mediating effe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life satisfaction of art psychology counselors. The subjects of the study included 196 art psychological counselors in Sokcho city. As an analysis method, the SPSS program was used to perform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for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and the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Firs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otional labor of art psychology counselors and their overall life satisfaction, both the surface behavior and inner behavior factors, which are sub-factors of emotional labor, have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overall life satisfaction.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otional labor of art psychology counselors and their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the inner behavioral factor, which is a sub-factor of emotional labor,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relation to workplace spirituality. This means that workplace spirituality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life satisfaction of art psychology counselors. This study is considered as basic data for preparing plans for improving the life satisfaction of artistic psychological counselors.

Keywords : Art psychology counselor, Emotional labor, Workplace spirituality, Life satisfaction, Inner behavioral factor

본 논문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eongHoon Ko(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

email: ajangajang2@hanmail.net

Received October 7, 2020

Revised December 3, 2020

Accepted February 5,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과학 기술의 발달과 경제적인 성장으로 인해 삶의 풍성함과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사회생활과 공동체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위기, 갈등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삶의 애환과 고통을 들어주고 힘을 실어주는 예술심리상담사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한계에 대한 기대와 방법, 해결책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술심리상담사란 심리상담사가 전문적인 심리학적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상담이나 매체물(미술, 음악, 놀이) 등을 이용하여 내담자의 고통을 경감하거나 해소해주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1] 예술 매체를 이용하여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감하거나 해소 해주는 역할이다. 결과적으로 예술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적으로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2]

직장인으로써 예술심리상담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두되는 일터 영성이란 '자신이 하는 일과 일터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인 것으로, 일터 영성의 중요한 이유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통해서 삶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3]

따라서 일터 영성이 '조직 내 업무가 동료 간 상호 의존적이 됨에 따라 동료의 역할, 태도 등은 조직의 성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료의 행동이 다른 동료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영향에 있어서 동료 행동이 일터 영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선행 연구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4]

예술심리상담사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감정노동에 대하여 살펴보면 감정노동의 개념을 처음 언급한 학자는 Hochschild로 알려져 있다. Hochschild는 감정노동을 '종업원이 조직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객과 관계를 맺게 될 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내면 행위와 표면 행위로 구성하였다. 즉, 감정노동이란' 조직으로부터 요구되는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필요한 계획, 노력, 통제(감정노동의 빈도, 바람직한 감정표현의 섬세함, 표현해야 하는 감정의 다양성, 감정 부조화)'라고 언급하였다.[5] 따라서,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를 보면 감정노동을 '서비스를 거래하는 동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나 노력'이라고 정의한 연구도 있었고,[6] '고객과의 대면 접촉 과정에서 감정 관리를 요구하고 그것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경영자 측으로부터 통제를 당하게 되는 노동'이라고 정의하였다.[7] 또한 김영조, 한주희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이 직무수행 할 때 나타

나는 실제적 감정상태와 관리자로부터 요구되는 감정상태의 불일치로 감정표현을 조절하려는 노력에 따라 구성원은 감정노동을 경험'한다고 하였다.[8]

이에 따른 예술심리상담사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에서는 Diener는 다음 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외적 기준 및 조건에 의해 규정짓는 것으로 주관적이 아닌 어떤 바람직한 속성 및 환경적 조건을 소유한 상태의 삶이 만족도가 높다. 둘째,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라는 것으로,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기준에 의거한다. 셋째,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감정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9] 또한, 삶의 만족도는 삶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을 평가하는 주관적 평가로 삶의 만족도는 삶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을 평가하는 주관적인 평가로, 개인이 살아가면서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의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10]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행복감(happiness),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 또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의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노인에게 미치는 삶의 만족도 변인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11] 또한, 독거노인 관리사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12]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술심리상담사들의 감정노동,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일터영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예술심리 분야에서 예술심리상담사들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 증진의 일환으로서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심리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일터영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심리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삶의 전반적 만족도의 관계와 일터영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예술심리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삶의 주관적 만족도의 관계와 일터영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0년 1월 20일 까지 속초시의 예술심리상담사 196명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 총 210부의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14부를 제외한 196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일반적 특성 4문항, 감정노동 12문항, 일터영성 39문항, 삶의 만족도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결혼여부, 연령, 근무경력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예술심리상담사의 감정노동을 측정하기 위해 김동환[12]이 사용한 감정노동의 측정도구는 12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일터영성을 측정하기 위해 노상충[3]이 사용한 일터영성의 측정도구는 하위요인 내면의식 9문항, 소명의식 10문항, 공감의식 5문항, 공동체의식 10문항, 초월의식 5문항 총 39문항으로 구성하여 일과 조직이라는 환경, 삶의 의미, 존재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인간 본연적 의식, 심리적 상태로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예술심리상담사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원희[10]가 사용한 삶의 만족도 측정도구 15문항으로 구성하여 직업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보다 만족도가 높으며 자신의 직장 생활에 만족도가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3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감정노동의 전체 신뢰도는 .876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일터영성의 전체 신뢰도는 .913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 신뢰도 또한 .893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최소한의 수준인 .60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인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Table 1. Reliability of main variables

division	the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emotional labor	12	.876
workplace spirituality	39	.913
life satisfaction	15	.893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s α 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예술심리상담사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으며, 각 측정변수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예술심리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삶의 만족도와 의 관계에서 일터영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3 단계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2.5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예술심리상담사의 성별은 여자 167명(85.2%), 남자 29명(14.8%)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 155명(79.1%), 미혼 41명(10.7%)으로 기혼자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은 50대 이상이 86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65명(33.2%), 30대가 24명(12.2%), 20대가 21명(10.7%)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상담 경력이 요구되므로 10년 이상 107명(54.6%)이 가장 많았으며, 1년-3년 미만이 52명(26.5%), 5년-10년 미만 29명(14.8%), 3년-5년 미만 8명(4.1%)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심리상담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

division		All (N=196)	
		frequency	ratio(%)
gender	male	29	14.8
	female	167	85.2
marriage	unmarried	41	20.9
	married	155	79.1
age	the 20s	21	10.7
	the 30s	24	12.2
	the 40s	65	33.2
	the 50s or older	86	43.9
employment period	1 - 3 years	52	26.5
	3 - 5 years	8	4.1
	5 - 10 years	29	14.8
	more than 10 years	107	54.6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예술심리상담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감정노동 요인은 M=3.42로 평균 점수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일터영성 요인의 전체는 M=4.04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 요인은 M=3.90으로 평균 점수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예술심리상담사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n key variables

division	N	minimum value	maximum value	M	SD
emotional labor	196	1.50	5.00	3.42	.65
workplace spirituality	196	1.81	5.00	4.04	.56
life satisfaction	196	1.79	5.00	3.90	.72

3.2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예술심리상담사의 감정노동, 일터영성, 삶의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예술심리상담사가 감정노동 요인과 일터영성 요인은 낮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264, p<.01$). 감정노동과 삶의 만족도 요인 또한 낮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r=.271, p<.01$). 반면 일터영성과 삶의 만족도 요인은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755, p<.01$).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관계수 값이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key variables

division	emotional labor	workplace spirituality	life satisfaction
emotional labor	1		
workplace spirituality	.264**	1	
life satisfaction	.271**	.755**	1

* $p<.05$, ** $p<.01$

3.3 예술심리상담사의 감정노동, 일터영성,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3.3.1 예술심리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삶의 전반적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일터영성의 매개효과

예술심리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삶의 전반적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일터영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67.8%이며,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감정노동이 매개변수인 일터영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본 결과,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표면행동($\beta=-.240, p<.01$), 내면행동($\beta=.601, p<.001$)은 삶의 전반적 만족도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표면행동($\beta=-.293, p<.001$), 내면행동($\beta=.586, p<.001$) 요인이 삶의 전반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일터영성 요인을 투입한 결과, 표면행동($\beta=-.110, p<.05$), 내면행동($\beta=.129, p<.05$) 요인은 삶의 전반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정노동의 표면행동, 내면행동과 삶의 전반적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일터영성은 모두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술심리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삶의 전반적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일터영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Table 5. The mediating effe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of art psychology counselors and their overall life satisfaction

step	division	B	β	R ²	Modified R ²	F	tolerance limit
step 1: Independence → mediation	(constant)	2.444		.277	.269	36.933***	.757
	surface behavior	-.151	-.240**				
	inner behavior	.555	.601***				
step 2: Independence → dependent	(constant)	2.249		.260	.252	33.924	.757
	surface behavior	-.217	-.293***				
	inner behavior	.637	.586***				
step 3: Independence, mediation → dependent	(constant)	.061		.678	.673	134.753	.723
	surface behavior	-.082	-.110*				
	inner behavior	.140	.129*				
	workplace spirituality	.896	.760***				

* $p<.05$, ** $p<.01$, *** $p<.001$

3.3.2 예술심리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삶의 주관적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일터영성의 매개효과

예술심리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삶의 주관적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일터영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3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42.4%이며,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감정노동이 매개변수인 일터영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본 결과,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표면행동($\beta=-.240, p<.01$), 내면행동($\beta=.601, p<.001$)은 삶의 주관적 만족도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표면행동($\beta=-.150$)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매개역할에서 탈락하였으며, 내면행동($\beta=.336, p<.001$) 요인은 삶의 주관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일터영성 요인을 투입한 결과, 내면행동($\beta=.075, p<.001$) 요인은 삶의 주관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정노동의 내면행동과 삶의 주관적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일터영성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술심리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삶의 주관적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일터영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Table 6. The mediating effe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of art psychology counselors and their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step	division	B	β	R ²	Modified R ²	F	tolerance limit
step 1: Independence → mediation	(constant)	2.444		.277	.269	36.933***	.757
	surface behavior	-.151	-.240**				
step 2: Independence → dependent	(constant)	2.558		.086	.076	9.055***	.757
	surface behavior	-.141	-.150				
step 3: Independence, mediation → dependent	(constant)	.555	.601***	.424	.415	470.64***	.757
	inner behavior	.464	.336***				
	workplace spirituality	1.024	.684***				

* p<.05, ** p<.01, *** p<.0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예술심리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일터영성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및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심리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삶의 전반적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일터영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표면행동, 내면행동 요인 모두 삶의 전반적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일터영성은 모두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예술심리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삶의 전반적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일터영성은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예술심리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삶의 주관적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일터영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내면행동 요인만 삶의 주관적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일터영성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면행동과 삶의 주관적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일터영성은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예술심리상담사의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내면행동과 삶의 주관적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일터영성은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조사지역이 속초시에 국한되어 있으며 조사 대상, 조사방법상의 한계 부분이 있으므로, 결과를 확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된 바와 같이 향후 예술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를 도입함으로 감정노동을 감소시키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천적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1] Hea-kyoung Cho, Eon Jeong Park and Sung-je Cho, "Verification of difference in the identity of art psychotherapist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ntological exploration of exper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Asian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 Sciences*, Vol.18, No.2, pp.1-9, 2019.

[2] Kyung-Soon Oh,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Spirituality, Recovery Elasticity, Job Satisfaction, and Happi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h.D dissertation, Gwangju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9.

- [3] Sang-Chung Noh, *The Impa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n Leadership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Ph.D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3.
- [4] Jin-Soo Han, *A Study on Peer Effect in Workplace Spirituality*, Ph.D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8.
- [5] Hochschild and Arlie Russell, *The Managed Heart*,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 [6] Dong-Woo Ko, So-Young Boo, *Exploring the Expenditure Mechanism of Visitors to Planning Festival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sumers and Advertising, Vol.2, No.2, pp.61-79, 2001.
- [7] Mi-hyun Goo, Yong-Dong Kim, Chang-Soo Jang, *Women's Conditional Recipient and Self-Sufficiency Project Settlement*,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2002.
- [8] Young-Joe Kim, Juhee Han, "Two Types of Emotional Labor Their Impacts on Job Burnout of Service Worker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Studies*, Korean Academy of Organization and Management, Korea, Seoul, Vol.32, No.3, pp.95-128, 2008.
- [9] Diener, E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95, No.3, pp.542-575, 1984.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95.3.542>
- [10] Hye-young Oh, *Effect of Family Functionality Perceived by Christian Youth on Self-Efficacy: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 Well-being*,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General Studies, Korea Bible College, 2015.
- [11] W. H. Kim, *A Study on the Related Variable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 Focused on Personality Traits, Family Support, Psychological well-being*,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Dongbang Culture University, 2019.
- [12] Lee Dae-Joo, Cho Seong-J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the elderly living alone, on the quality of life, Journal of Arts", *Humanities and Social Convergence Multimedia*, Vol.9, No.10, pp.645-656, Oct. 2019.
DOI: <https://dx.doi.org/10.35873/aimahs.2019.9.10.055>
- [13] Kim Dong-hwan, *The Effect of Civil Affairs Civil Affairs on Emotional Consumption and Job Attitude*, Ph.D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4.

이 은 속(EunSook Lee)

[정회원]



- 2020년 12월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 2017년 2월 1일 ~ 현재 : 가람심리상담연구소 미술·놀이상담사
- 2019년 12월 ~ 현재 : 속초시 가온누리(주간활동서비스) 이사

<관심분야>

예술심리

고 정 훈(JeongHoon Ko)

[정회원]



- 디자인학 박사
- 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 문화예술콘텐츠학과 학과장
- 뷰티예술학과 학과장

<관심분야>

콘텐츠융합디자인